

표준화된 축산과 경쟁력있는 축산인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

- 축산 신문사 윤봉중 회장



우리나라 축산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축산신문 윤봉중 회장을 찾아뵙고 축산에 대한 소신을 들어 보았다.

1985년 9월 28일 부업위주의 축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전업농과 축산전문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축산신문을 창간하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발행부수가 증가하고 축산계의 대변지로서 축산정책, 사양관리, 최신정보 등을 신속히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윤봉중회장의 축산에 대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축산신문은 한국홀스타인품평회, 각종세미나 등의 행사 취재는 물론 분유 보내기, 달걀 보내기, 돼지고기 보내기 운동 등을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여기며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소외계층에게 아름다움을 베푸는 일이며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축산물 소비·홍보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축산인이 함께 자리하는 신년교례회, 축산인 등반대회 그리고 잠시 중단된 축산인 체육대회를 개최한 이유는 정보를 교환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축산인들이 서로 의기투합하고,

친화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특히 축산신문사는 전국에 8개 지사를 두고 신속하고 정확한 취재는 물론 정보도 빠르게 전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죽은 정보는 독자에게 신뢰를 줄 수 없고 불신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더불어 윤회장은 타 신문과 비교하여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이 많으며, 본인 스스로도 일선에서 뛰었다고 한다. 또한 경영이 어려워 직원에게 주는 급여는 낮지만 연말결산 후 예산이 남으면 직원에게 지급하는 등 노사(勞使)가 함께 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직원 스스로 자율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종축개량협회의 역할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최근 20년간 한우의 평균체중이 500kg에서 약 600kg으로 증가하고 젖소의 305일 산유량이 5,000kg대에서 대략 8,000kg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종축개량의 효과이고, 충분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과제는 육량 및 유량 등의 생산성 증대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기호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량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한우의 경우 외국의 소들이 흉내낼 수 없는 한우 고유의 맛과 향을 가진 유전자를 찾아 더욱 개량하고, 브랜드화를 통한 차별화 달성으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개정된 농지법을 바탕으로 남아도는 농지를 축산분야에 할애하여 활용해야 한다. 즉 97ha에서 연간 3,500만 석의 쌀이 생산되는데 350만석이 남는 실정이므로



이에 비례하여 남은 농지를 조사료를 생산하고,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축산용도를 할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축산은 축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보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많은 실정이며, 환경이 열악하고 규제가 많은 현실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축산에 대한 애정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성숙된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농가들도 생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소비자 기호와 시대흐름에 맞는 축산물의 생산은 물론 자조금 등을 활용한 소비에도 노력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축산방향과 전망에 대해서는 지구촌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계화시대의 표준화된 축산과 경쟁력 있는 축산인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축산인은 프로근성이 있고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축산을 선도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끝으로 우리 모두가 사명감과 철학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한국축산의 미래는 희망적이라고 피력했다.